人體와 建築의 原理를 생각하는 敎育政策

大邱大 總長 李 泰 榮

지금까지 우리는 大學敎育의 成長政策, 즉 實驗大學의 계획 및 실시, 入試制度改善, 敎授再任用制度, 敎育課程의 改編, 早期 및 卒業定員制度, 그리고 이데올로기 敎育의 強化 등의 敎育構造의 高度化 및 巨大化 政策을 계획·운영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成長政策의 결과로 많은 問題點도 없지 않았던 바, 지금은 成長보다 安定을 찾는 정책을 追求하게 되었고 이러다 보니 어느덧 大學敎育의 安定이 至上目標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一時的 光明보다 永遠한 열매를 따는 眞理를 찾을 수 있는 대학교육의 成長과 安定의 調和政策을 풀어야 할 우리 모두의 걱정과 念慮는 날이 갈수록 더해 가기만 한다.

敎育이란 "生物이나 人間의 몸과 같다"라고 定義해 보자.

첫째, 우리는 實驗大學實施 이후 우리의 몸을 크게 하는 데만 온 힘을 기울여 왔다. 즉, 敎育力을 키우기 위해서이다. 힘이 있으려면 먼저 덩치가 크고 健康해야 하며, 또 뼈대가 굵고 튼튼해야 하고 筋肉이 잘 發達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힘을 維持할 수 있으려면 病이 없어야 하고 心臟, 胃, 肝, 눈, 코 할 것 없이 아픈 곳이 없어야만 한다. 특히, 心臟이 아주 나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 거기에 생각하는 머리가 있어야 하고 힘을 集中하거나 필요할 때 재빨리 힘을 쓸 줄도 알아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옳고 바른 것을 가려 精神을 집중할 줄 알아야 힘을 維持·發展시킬 수가 있다. 國力도 마찬가지다. 建築에도 比喩할 수 있지만, 먼저 敎育이 巨大化 또 高度化되어 敎育力의 規模가 커야 國力이 커질 수 있다. 이것은 骨格과 筋肉이 强大한 것과 꼭 같다.

둘째, 그런데 사람이 힘을 쓰거나, 또 그냥 살아 나가는 데에도 뼈와 筋肉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것 못지 않게 心臟이 튼튼해야 하고, 肝과 胃, 血管과 細胞가 다

같이 健康해야만 한다. 一國의 敎育도 政府와 大學, 敎授와 學生 그리고 金融과 財政 등 敎育構造와 制度, 敎育行態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잘 움직여야만 한다.

세째, 사람이 나이들어 20고개를 넘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健康을 管理, 保存할 줄 알아야 한다. 뼈대를 크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輸血과 補藥에만 의지한다면, 그것도 남의 돈을 빌려 몸을 크게 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健康도 온전하게 保存하기 어렵거니와 빌린 돈이 떨어지면 먹을 飮食이나 運動할 餘裕조차 없어지게 마련이다. 敎育도 그렇다. 스스로의 힘으로 敎育力을 키워 나가야만 하며, 각 大學의 特性에 따라 擴大再敎育構造를 형성해야만 한다.

네째, 大學의 金融이 잘못 흐르고 있는 것은 體內에서 피가 잘못 흐르고 있는 것과 다찬가지다. 피가 잘못 흐르게 되면 骨病이 나는 것과 같은 原理로 金融이 비뚤어지게 흐르면 敎育力, 즉 國力이 衰弱해지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健康한 사람도 눈, 치아, 허리, 그리고 발가락 하나라도 아픈 곳이 있으면 힘을 잘 못 쓰듯 敎育도 아픈 곳이 있으면 敎育力을 完全히 發揮할 수 없게 된다.

다섯째, 그런데 무엇보다 國家敎育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의 마음 가짐이 밝아야만 하며, 사람들의 價値觀과 精神이 敎育力 伸張과 그 軸을 같이 해야만 한다. 人間資本이나 科學, 技術, 政治秩序는 敎育倫理와 社會正義 등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는, 또 이것을 秩序化하고 傳統化하는 精神이 싹틀 때 비로소 敎育力이 長期的으로 伸張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大學敎育이 나아갈 方向은 成長과 安定의 調和政策으로 "人體와 建築의 原理를 생각하는 政策"을 세워 運營하는 것이라고 主張하고 싶다. 尖端技術이 第2의 産業革命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時代에 걸맞는 敎育政策이 마련되고 동시에 이때껏 손에 쥐어지지 않았던 敎育의 成長과 安定·均衡이 조화될 때, 비로소 大學敎育의 장래와 健全함이 함께 施行錯誤 없이 持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길은 첫째, 大學自體는 敎育 각 部門의 社會的이고 動態的 收益性을 찾아 나서야 될 것이다. 둘째, 政府의 敎育構造改編과 調整은 대학 자체가 할 수 없는 部門에 局限해야 할 것이며, 敎育政策도 誘導的인 방법으로 環境과 與件을 造成해 주어 大學自體의 自生的 再敎育構造가 확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心臟과 肝, 눈과 귀가 아무 탈 없이 스스로 作動되고 細胞 하나하나가 生命力을 지닌 채 健全하게 커가야 이제까지 키운 덩치가 덩치行勢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敎育政策을 세울 때, 政府와 大學은 誠實과 忍耐를 가지고 責任을 다하여 施行錯誤 없이 지금까지 잘 다져진 大學文化와 價値觀이 併存할 수 있도록 "人體와 建築의 原理"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大學敎育政策을 마련하길 바라고 싶다. ※